

● 주일설교요약

제목: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II) 본문: 창세기21:33~34, 22:1~2, 13~14

설교자: 노창영 목사

서론//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①방패되신 하나님 ②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③전능하신 하나님되심을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다른 두 가지를 설교하겠습니다. 4,000여년 전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I.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창23:31~34, 22:1~2)

A.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창21:33~34)

아브라함은 브엘세바(Beersheba)에서 에셀나무(Tamarisk Tree)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나무는 우리 말로는 위성류인데 이는 중국 진나라의 수도 「위성」에 자생한 버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근동에서 자라는 상록관목인 에셀나무는 6~9m까지 자랍니다. 뿌리는 30m나 뻗어 건조한 땅 깊은 곳에 흐르는 물을 찾아서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에셀나무의 가느다란 가지 위에는 잎사귀가 바늘처럼 촘촘히 붙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봄에 백색이나 연분홍색을 띠는데 이 나무는 건물 짓는 목재나 솥으로 사용됩니다. 지금도 베두인 유목민들은 에셀나무 그늘에서 쉬고 가축은 그 잎을 먹습니다. 에셀나무의 종류는 10여종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에셀나무가 거룩한 나무로 간주 됩니다. 사울 왕은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국정을 수행하였고(삼상22:6), 그가 죽고 나서 그 시신의 뼈를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였습니다(삼상31:13). 물이 부족한 브엘세바같은 건조 지역에 생존하는 에셀나무는 수명을 수백년으로 보는데 이는 불변과 영생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The Everlasting God)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시편90:1~2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사야9:6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The Everlasting Father)로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40:28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The Eternal Life)을 주십니다(요3:16, 요일5:11~12).

B. 에셀나무 이전과 이후의 가르침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사건의 전후 사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1. 에셀나무 이전(Before)의 사건(창21:22~34)

에셀나무를 브엘세바에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전에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평화와 불가침 조약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용맹, 진실함, 부요함,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창21:22)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들에게 나타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대대로 그의 나라와 아브라함 족속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평화 조약과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억지로 늑탈(빼앗음)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소와 양으로 언약을 세우는 동시에 따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우물판 증거로 삼습니다. 이 같은 평화조약과 우물 판 맹세를 하여 이곳을 브엘세바(맹세의 우물)라고 하였습니다(창21:25~32).

그러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그 아들 이삭이 부족장이 되고 나서 이 맹세는 깨 집니다(창26:12~33).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받은 축복(농사하여 백배를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고, 거부가 됨)을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세운 불가침 조약을 먼저 깨고 아브라함 때에 맹세로 판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이삭을 훼방하고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언약, 맹세의 유효기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어떤 약속과 언약과 맹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업계약, 고용계약, 매매계약, 해외수출계약, 부동산등기, 유언등기와 국제평화조약 등뿐만 아니라 특허, 변호사가 공증한 계약의 문서들까지 각종 계약서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악한 인간의 장난, 역사의 변화는 이같은 인간의 계약을 무용하게 만듭니다. 또한 결혼, 임직서약(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세례서약, 선교사파송서약, 성경시대의 시내산의 성민계약(출19~20장), 나실인 서약(삼손의 나실인 서약 파괴, 삿13~16장)도 영원하지 못합니

다. 이러한 모든 인간 사이의 계약서와 언약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들의 약속들은 아비멜렉의 언약들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도 시대도 변화되고 변질되고 바뀌고 잊혀집니다. 계약은 깨지고 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요한일서2:17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6:68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인간의 약속 언약, 계약, 서약이 얼마나 무능하며 변질되어 가는 것인지 깨닫고 영생의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하신 그 말씀과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치 않는 약속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영생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2. 에셀나무 이후(After)의 사건(창22:1~2)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은 얼마뒤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살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이때 아마도 10대의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창22:1~2).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제 3일에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고 사환들을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산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을 주셔서 아들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창22:1~13).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11:14~19에서는 아브라함이 번제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능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고(확신하였고), 그래서 이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도

성을 믿었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였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이 부른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①인간의 약속, 계약, 맹세와 달리 영원하신 약속,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②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I.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창22:13~14)

A.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창22:13~14)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 준비된 그 산의 수풀에 뿔이 걸린 숫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Jehovah Jireh,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In the mount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예호와 이르예」에서 이르예는 보다, 나타낸다, 공급한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B.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대신 번제로 드려진 숫양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을 준비하시듯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언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 유월절 어린 양, 성막, 도피성, 놋뱀, 붉은 줄, 만나, 유다의 사자, 모세, 다윗, 에스더의 왕의 흠,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예언 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이 비춰주는 집중조명(Spot-Light)은 모세, 엘리야,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조명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을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세례요한 준비), 요셉과 마리아(예수님 탄생 준비), 별과 동방박사(예물 축하), 천사들의 노래(축하 찬양), 목자들(전파),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예수님의 33년 공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준비 가운데 오셨습니다.

C.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이삭 대신 솥양을 준비하신 것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창5:32). 노아가 아들을 낳은 후 방주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하였다고 본다면(창7:11), 대략 50~100년간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치밀하게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실 때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살펴봅시다.

①먼저 지도자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40년×3시기를 보여줍니다. 1단계 40년은 애굽에서의 학술과 말과 행사를 배우는 기간이요, 2단계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겸손을 배우는 기간이요, 3단계 40년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지도자로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하여 지도자를 준비하십니다.

②둘째는 거룩한 백성(성민, 聖民)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성민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속죄와 하나님께 접근함을 위하여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을 통한 제사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민으로 세워가십니다.

③셋째는 광야 생활 중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의 역사, 마라의 쓴물과 단물, 엘림, 반석의 물, 만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 뱀과 뚫 뱀 등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앞길을 40년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단지 과거 성경 역사 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